

# 生産活動에서 본 韓半島 新石器文化

-中西部地方과 東北地方의 貝塚遺蹟을 中心으로-

崔鐘赫 (慶南文化財研究院)

## I. 서 론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생업을 포함한 생산활동은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신석기시대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보다도 유적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유적의 지리적 입지 등 자연조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생업은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농경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농경 이전에는 수렵·어로·채집 등이 주요한 생산활동이었다. 또 각 지방 또는 소 지역에 따라 다양한 생산활동과 그 변화가 보이는 것에서 한반도 신석기시대 문화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의 복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동북지방과 중서부지방의 생산활동에 대해서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생산활동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로는 동·식물유존체 등의 자연유물과 토기·석기·골각기 등의 인공유물이 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의 유존상태가 양호한 유적으로는 주거지유적과 패총유적이 있다. 이하에서는 두 지방에서 발굴 조사된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그 유적에서 출토하는 동물유존체와 석기·골각기의 조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동물유존체는 패류·포유류·어류의 3종류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패류는 패의 서식지를 중심으로 하여, 水域과 패류의 群集을 중심으로 세분했다. 어류와 포유류에 대해서도 서식지를 중심으로, 어류는 汽水~內灣·汽水~近海·近海~外洋의 3군으로 포유류는 陸上動物과 海棲動物의 2군으로 분류했다.

석기와 골각기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즉, 수렵(석촉·석창 등), 어로(낚시바늘·어망추·작살·찌르개), 채집·농경(괘이·보습·낫·돌칼 등)활동에 직접 사용된 도구와 그 행동에 동반되는 도구(공구와 가공구)로 분류했다<sup>1)</sup>. 또 농경구는 농경의 일련의 행동에 사용되는 도구,

1) 석기와 골각기에 관해서는 각 보고서의 기재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수량을 중심으로 분류를 행하지 않고, 유물의 사용용도,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또 갈돌·갈판이 단독으로 출토하는 경우에는 식물가공구로 분류하나, 그 다른 농경구와 같이 출토했을 경우에는 농경구로 분류했다.

즉 耜起具(괭이·보습), 收穫具(낫·돌갈), 조리구(갈돌·갈판=鞍形磨臼)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다. 그밖에는 출토량은 적으나 식물유존체에 대해서도 검토를 행했다.

## II. 각 지방 생산활동의 특징

한반도신석기시대의 지역구분은 토기의 저부를 중심으로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즉, 平底土器文化圈으로 서북·동북지방, 尖底·丸底土器文化圈으로 中西部地方, 시기에 따라 平底土器文化圈에서 尖底·丸底土器文化圈으로 변화하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지방으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중서부지방은 평양(평안남도·황해도)과 서울(경기도·충청도)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며, 평양(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방과 서울(한강)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동북지방은 동해·러시아·중국 동북지방에 접해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남도·북도를 가리킨다.

### 1. 중서부지방

#### 1) 유적군의 특징

중서부지방은 지리적인 측면과 토기문화의 특징을 고려해 크게 2지방으로 분류되며 각각 2 또는 3유적군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았다. 서부지방은 내륙(강안)유적군, 해안유적군으로 나누어지며 내륙유적군으로는 지탑리·마산리·금탄리·남경유적 등이 있다. 유적은 대동강 또는 재령강유역의 구릉이나 충적평야에 분포한다. 유적입지는 시기에 따라 변화가 보여, 빠른 시기에는 구릉의 평탄지에, 늦은 시기에는 충적평야에 주로 입지한다. 유적의 성격은 거의가 주거지이며 시기는 전기~후기로 남부지방과 비교하면 존속기간이 짧은 편이다. 생활의 주된 무대는 산지와 강이다. 동물유존체의 보고는 용곡동굴유적에서 간단한 보고만이 있을 뿐이다. 해안유적군에는 공산·연도리·용반리·용당포패총이 있다. 유적은 해안에서 가까운 구릉의 경사면에 주로 분포한다. 유적은 현재의 해안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고, 해발은 20m 이상의 것이 많이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적이 형성될 당시는 현재와 다른 자연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식적인 보고는 공산패총 뿐이나 많은 유물이 한국전쟁 때 유실되어 그 내용은 불분명한 점이 많다. 유적의 시기는 공산패총 이외에는 후기가 중심이다. 중부지방은 내륙(강안)유적군, 해안유적군·도서유적군으로 나누어지며 내륙(강안)유적군으로는 한강